

협회소식_kira news

제1회 이사회

2005년도 제1회 이사회가 지난 1월 11일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정관개정(안)심의위원회 구성의 건, 임원선거관리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회관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 승인의 건, 2005년도 업무실적관리회계 일시차입 승인의 건,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관한 건, 2005년도 건축연구원 운영계획(안)에 관한 건, 서울건축사회의 회관지분 조정 신청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정관개정(안)심의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장은 이상돈 이사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기로 함.
- 제2호의안 : 임원선거관리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임원선거관리규정개정(안) 중 제9조의 단서조항은 삭제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회관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계약금액 : 일금 7,980,000,000원(부가세별도)
계약자 : 남흥건설(주)
- 제4호의안 : 2005년도 업무실적관리회계 일시차입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차입금액 : 4,000,000원

▲ 협의사항

- 제1호 :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관한 건
 - 차기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기로 함.
- 제2호 : 2005년도 건축연구원 운영계획(안)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추진하되 중요한 결정사항은 이사회

의 의결을 받도록 함.

- 제3호 : 서울건축사회의 회관지분 조정 신청에 관한 건
 - 조정신청에는 변호사 없이 대응기로 하고, 정식으로 소가 제기되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기로 함.

시공업체 설계검업 반대

우리협회 의견 최대한 반영기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추진한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 중 「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 참여허용방안」에 대해 우리 협회는 반대의견을 강력히 피력하여 규제개혁기획단은 우리 협회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 협회는 건설산업규제 합리화방안 중 「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 참여허용방안」은 건축사자격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나아가 건축설계분야의 질서를 일시에 붕괴시킬 수 있는 크나큰 오류임을 지적, 즉시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건축단체연합(FKA) 건축3단체장의 서명 하에 공동건의문을 건설교통부장관과 규제개혁기획단장에게 전달했다.

우리 협회는 지난 1월 14일 규제개혁기획단장 주재로 개최된 건설관련단체 간담회에서 “시공업체의 건축설계업 참여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 제시와 함께 이에 대한 이유와 근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1월 20일에는 같은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과 규제개혁기획단장에게 정식공문과 함께 제출했다.

또한 우리협회는 1월 18일 한국건축단체연합(FKA)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정식안건으로 상정, 건축3단체가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하여 1월 21일 건축3단체장이 서명한 공동건의문(첫째, 정부의 기술분야 '전문화 육성정책'에 역행되며, 국가간 건축사자격 상호인정 시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다. 둘째, 설계와 시공의 상호견제(Check & balance) 기능상실로 불법·부실 건축물이 은폐되고, 이해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이 예상

됨. 셋째, 건축설계를 시공편의 위주로 이용하여 설계의 독창성과 건축사업의 독립성이 상실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짐. 넷째, 건설회사가 건축설계 수주를 독점하게 되어 건축설계분야의 수주질서가 일시에 붕괴됨.)을 건설교통부장관과 규제개혁기획단장에게 전달하기로 협의결정했다.

이러한 강력한 반대 움직임에 따라 1월 27일에는 규제개혁기획단장 주재로 다시 건설관련단체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우리 협회는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강력히 주장하며 1월 28일 열린 차관 회의에서도 강력히 이러한 의견을 거듭 표명했다. 아울러 1월 31일 건설교통부 건축과장 기획단을 방문하여 재차 반대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우리협회 이사회 협의를 거쳐 회장 및 이사가 직접 규제개혁기획단을 향의 방문하여 면담을 가진 결과, 지난 2월 2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 참여허용방안」을 추후 Task Force 팀을 구성하여 검토'기로 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 참여허용방안」과 같은 건축사의 권익을 제한하고 축소시키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기로 하고, 건축사의 권익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참고 : 우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

건축사시험 421명 최종 합격



2004년도 건축사자격시험에 총 5천192명의 응시자중 421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는 응시자중 8.1%가 합격한 것으로 이중 여성합격자는 전체의

13.3%인 56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우리 협회는 지난 1월 21일 서울 역삼동 소재 한국과학기술관에서 합격자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했으며, 건축사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교부했다.(최종합격자명단 103쪽 참조)

「국제화시대에 맞는 건축사업무와 대가의 제도화방안」 토론회 개최

오는 3월 15일(화)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우리 협회는 오는 3월 15일(화)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기자회건설)에서 「국제화시대에 맞는 건축사업무와 대가의 제도화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에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이 가격협정에 해당된다 하여 폐지방침을 국무회의(2004. 10. 12)에 보고한 바, 이것이 현 건축설계업계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나아가 부실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의 질을 낮춰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 건축물의 공공성을 유지 확보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혼란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건축물의 공정성 및 안전성 확보와 건축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개최된다. 이날 이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1부 주제발표

- 제1과제 : 건축사업무대가기준과 건축계의 현실
[주제발표자 : 이관영, FKA 실무위원]
- 제2과제 : 건축계의 현실인식과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제고
[주제발표자 : 전영철, 대한건축사협회 협회발전위원]
- 제3과제 : 국제화시대에 미래지향적인 전략
[주제발표자 : 김광현, 대한건축학회 이사, 서울대학교 교수]

▲ 2부 토론

종합토론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건설교통부, 시민단체, 주제발표자]

2005 김중업 장학건축사 선발

김중업은 1900년대 식민지와 6.25전쟁의 소용돌이로 인해 세계 건축의 흐름에서 소외되었던 우리나라의 건축적 상황에서 서구의 모더니즘을 한국 건축으로 승화시킨 최초의 건축가이며, 자기만의 독특한 건축적 경지인 서양건축의 한국화 혹은 한국건축의 현대화를 이룬 건축가로 평가된다.

그의 열정과 정신을 기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프랑스 건축동문회에서 '김중업장학건축사'를 선발한다. 선발된 건축가는 프랑스 현지에서 건축작업과 여행을 위한 특전이 주어진다.

- 후원 : 주한프랑스대사관

- 수혜자 혜택 및 의무

· 장학금 : 약 5,400유로(1,800유로 x 3개월)를 프랑스 현지에서 지급, 단 항공료는 개인부담

· 설계사무소 및 현지숙소 :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추천하기도 하지만 수혜자 본인이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동작업 : 수혜자가 선택한 사무소에서 3개월간 공동작업

· 보고서 : 공동작업 내용의 간략한 결과 보고서를 대사관 및 본 동문회에 제출

- 응모대상

· 국내외의 전문대이상에서 건축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현장실무에 있어서 프랑스어 혹은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한자

- 선발방식

· 매년 1사람에게 지급

· 프랑스건축동문회에서 3명의 후보를 1,2,3순위로 선정한 후, 프랑스대사관에서 여학 인터뷰 거쳐 수혜자 결정

- 응모방식

· 소정양식의 응모신청서와 포트폴리오 (A3용지)

- 포트폴리오 속지 첫 페이지는 흰색이며 반 (왼쪽)은 공란, 나머지 반(오른쪽)은 이력서
- 응모자의 작품(기성작, 계획안, 참여작)중 2 혹은 3작품 -작품당 5쪽이내
- 포트폴리오 표현방식 - 자유
- 질의응답
- 2005년 1월 10일~2월 10일
- 프랑건축동문회 홈페이지 (www.frarchi.com)
- 기타 문의사항은 02-3462-0381 한도시건축사무소 혹은 mail: athan@kornet.net
- 접수
- 접수일: 2005년 2월 18, 21, 22일(3일간)
- 접수자: 한만원/프랑건축동문회
- 접수처: "한도시건축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876-14 정자빌딩 2층(우:135-825)
- 접수방식: 방문 및 우편접수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2004년 심사 및 진행 일정
- 동문회 심사: 2월23~25일
- 대사관 심사: 3월 중
- 결과발표: 3월 28일
- 대사관 행정서류 준비: 4월~8월
- 수혜자 출국: 8월 말
- 수혜자 현지 실무: 9~11월
- 보고서 제출: 12월20일
- 발표
- 프랑건축동문회 홈페이지 (www.frarchi.com)
- 주한프랑스대사관 홈페이지 (www.ambafrance-kr.org) 및 개별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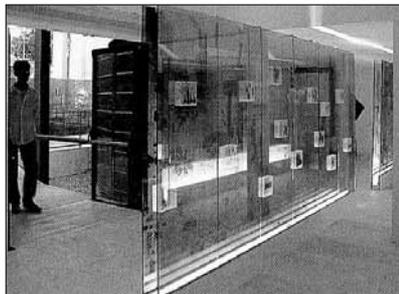
2004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귀국전시회 및 국제포럼

지난 2004년도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여해 좋은 결과를 얻었던 한국관이 귀국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국제포럼을 겸하여 이루어진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봉렬 교수의 진행으로 「안에서 본 방의 도시」와 서울시립대 김성홍 교수의 진행으로 「밖에서 본 방의 도시」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2월 18일부터 3월 5일까지 마로니에 제전시실에서 열리는 「작은 소리 열린공간 2005」 전시회 작업도 병행한다.

- 전시기간: 2005. 2. 23~ 3. 6
- 포럼일시: 2005. 3.5 오후 2시~5시
- 장소: 마로니에 미술관 제2전시실
- 후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문의: hna건축연구소 박혜선

02-6245-6372



경향하우징페어 20주년 기념 특별주거 전시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경향하우징페어는 풍성한 특별기획전으로 꾸며져 「20주년 기념 전시회」와 「특별주거전시」행사로 막을 연다.

주목할 만한 것은 특별주거전시로서 21세기 미래형 주거의 트렌드를 짚어볼 수 있는 신개념 주거 체험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전시공간은 최근 웰빙을 넘어 새로운 경향으로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개념과 미래형 홈 디자인 트렌드로 선보이게 된다. 경향하우징페어 20주년 기념전시(경향하우징)와 더불어 마련되는 특별주거전시관은 니즈비즈 에이전트에서 공동 주관하고, 경향하우징과 LG화학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2005년 2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6일 동안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래형 홈 디자인 트렌드 전'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문의: 니즈비즈 에이전트 02-545-4252

SAKIA 7기 작품 전시회 안내 및 2005년 건축실무포럼 안내

한국건축가협회에서는 부설 한국건축가학교(SAKIA) 7기 작품 전시회 및 2005년 건축실무포럼을 개최한다.

지난 2004년 12월 29일 한국건축가학교(SAKIA)에 7기로 입학한 101명의 학생들이 약 5주간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는 작품전시회는 판화 수업, 철학특강 등을 통해 새롭게 건축에 접근한 학생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회이다. 또한 이 기간 중 컬럼비아대학 도시 디렉터로 활동 중인 Richard A. Plunz를 초청하여 포럼을 개최한다.

- 전시회 일정
- 행사명: 한국건축가학교(SAKIA) 7기 작품 전시회
- 일 시: 2005년 1월 29일(토) 오전 10시 ~ 2월 4일(금)
- 장 소: 홍익대학교 대학로 캠퍼스(구. 디자인포장 센터)
- 건축실무포럼 일정
- 행사명: 2005년 건축실무포럼
- 초청자: Richard A. Plunz(컬럼비아대학 도시 디렉터)
- 일 시: 2005년 2월 3일(목) 오후 4시
- 장 소: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창의관
- 문의: 02-774-8050

제8회 강구조 건축설계 공모전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가 주최하는 제8회 강구조 건축설계 공모전의 요강이 발표되었다.

산업자원부와 건축학회, 한국강구조학회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테마 전시관(Exhibition Hall for Designated Purpose)'을 주제로 다원성과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21세기의 문화와 산업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나의 전시 주제를 선택하여 전시물과 관객의 다면적이고 직접적인 만남을 제공하는 건축공간의 제시를 요구한다.

- 참가접수기간 : 2005. 3. 21~ 3. 26
- 작품제출기간 : 2005. 6. 27~ 6. 29
- 시상식 및 전시회 : 2005. 7. 25~ 7. 29
- 참가자격 : 대학(원) 건축관련 학과 재학생, 3인 이내 공동응모 가능
- 시상내용 : 대상1점(상패 및 상금 700만원 상당), 금상 1점(상패 및 상금 500만원 상당), 은상 2점(상패 및 상금 300만원 상당), 동상 5점(상패 및 상금 200만원 상당), 입선 30점(상패 및 상금 30만원 상당)

문의 :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

02-559-3564, www.steelcon.or.kr



2005 진아건축 강연 시리즈

진아건축은 건축의 영역 뿐만아니라 마케팅, 부동산, 섬유 디자인 등 건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건축 외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를 돌아봄으로써 건축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디자인 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2005년도 상반기에 'Design Knowledge'라는 주제로 강연 시리즈를 진행한다. 세미나 일정은 아래와 같다.

- 세미나 일정

- 2월 25일 : 최근작업(장운규/국민대)
- 3월 25일 : 브랜드 빌딩, NIKE(송옥환/한국 나이키)
- 4월 8일 : 서울 사무용 부동산 시장 동향 (허문호/CB 리처드 엘리슨)
- 4월 29일 : 개발연대의 도시와 건축(안창모 /경기대)
- 5월 27일 : 인테리어 스타일링 & 드레싱(장응복/모노 컬렉션)
- 6월 24일 : 생태건축과 단지계획(이규인/아주대)

- 장소 : 진아건축 크리티크 스페이스 지하 1층

- 시간 : 오후 4시

문의 : 진아건축 02-583-4100



신간

모형 속을 걷다

이 책에서 저자는 20여년 넘게 일하며 작품에 담아온 설계 방법론을 '불편하게 살자, 밖에서 살자, 늘려 살자' 3가지로 집약 한다. 그리고 이들 세 가지를 묶어 '채 나눔'이라는 고유한 방법론으로 그동안 설계한 작품들과 함께 명쾌하게 풀어간다.

이 '채 나눔'이란 한 덩어리의 집을 여러 채로 나누자는 주장으로 건축 목적 자체가 큰 공간이 아닌, 대형화, 단일화 되지 않아도 좋을 유형의 공간들도 무의식적으로 닳아가고 있는 것을 되짚어 보게 한다. 또한 환경을 고려한 우리 주거 양식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채 나눔'은 작을수록 나누자는 주장으로 건축 이야기라기보다는 '건축의 결론은 사람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집과 자연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집짓기'를 행하고 있는 저자의 '사는 방식의 제안'이기도 하다.



이일훈 지음/262쪽/9,500원/솔출판사 발행 02-332-1526